

## 강압 명령 · 교육 부재 출가 행자는 하산한다

### 조계종 교육원 불학研, 행자 퇴사 원인 분석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하 두 중 하나는 출가자 확대에 있다. 하지만, 정작 일반인이 출가하려 해도 행자 생활을 마치기 전 중도 포기자가 많아 행자 교육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퇴사자 통계보다 많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5월 31일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와 행자 퇴사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76명이 행자 등록을 했고, 410명이 퇴사했다. 이는 전체 2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257명이 등록해 70명(27%)이 퇴사했다.

본사별로는 직할교구, 마곡사, 수덕사, 은혜사, 고운사, 대흥사가 퇴사율 30%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나머지 본사들도 대부분 20%대의 퇴사율이 집계됐다.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현재 인원은 행자등록을 했다가 퇴사한 사람을 집계한 것”이라며 “등록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집계가 안된다. 실제 중도 퇴사자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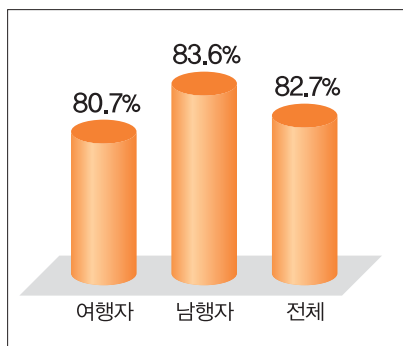
#### 수계자 83% “틀어갈래”

이렇게 높은 퇴사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학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 50기 수계교육을 받은 행자 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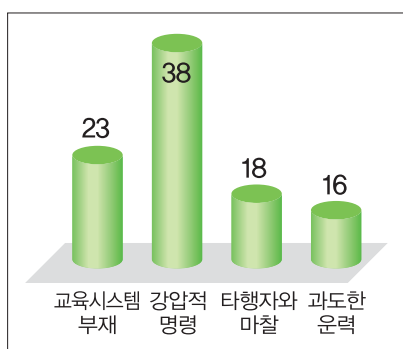
조사에 따르면 전체 81명 중 67명(82.7%)이 중도 포기를 생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행자는 55명 중 46명(83.6%)이, 여행자는 26명 중 21명(80.7%)가 중도 포기를 생각했다. 중도 퇴사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압적 명령·분위기’(38건·중복응답)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스템 부재(23건), 타행자와의 마찰(18건), 과도한 윤력(16건)이 중도 퇴사를 생각한 이유로 나타났다.

중도 퇴사 원인에 대해서는 남·여 행자가 상이하게 조사됐다. 남행자의 경우 교육시스템 부재(19건)·강압적 명령(18건)이 높게 나타났고, 여행자는 강압적 명령(20건)으로 압도적으로 높

#### 중도포기 유혹



#### 중도포기를 생각한 이유 (중복 응답)



#### 50기 수계교육 받은 행자 설문

81명 중 67명 “중도포기 생각”

남행자 교육·명령 등 원인 꼽아

여행자 ‘강압적 명령’이 압도적

민주적 사회서 살아오던 행자들

수직적 위계 관행에 많은 불만

“중앙 ‘상설 행자교육원’ 필요”

았다.

또한, 수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71%가 누구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 현재 행자 지도프로그램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과도한 윤력 시간도 문제다. 2015년 교육원 연수팀이 작성한 ‘행자주요통계’에 따르면 행자들의 평균 교육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지만, 윤력 시간은 평균 4시간에 달한다. 행자들에게서 “‘사찰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불학연구소는 “대화와 설명을 통한 교육보다는 여전히 수직적

위계로 행자 관리와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문 교육 이후부터 수계 교육 이전까지 시중 행자 교육과 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돼야

행자들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해 조계종이 내놓은 방침은 ‘출가지도법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되는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구성된다. 현재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제외하고 모두 위촉됐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상담의 역할을 맡는다.

행자 지도를 전담하는 출가지도법사들은 5월 31일 열린 워크숍에서 중도퇴사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8교구 직지사 출가지도법사 희봉 스님(직지사 포교국장)은 “미안마에서는 신입 출가자나 재가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불교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심이 생겨 일을 한다”며 “우선적으로 불교의 바른 이해와 기본 습의를 익힐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7교구 금산사 출가지도법사 응묵 스님(실상사 주지)도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은 이전에도 많이 주장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면서 “종단 100년 대계인 출가와 승가교육 진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단기출가학과와 더불어 상설 행자교육원이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윤력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아닌 상담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출가지도법사 능견 스님(운문사 교무)은 “운문사에서는 행자들에게 ‘왜 윤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행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 수계 전까지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스님들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서울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불사 착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전통사찰 강남 봉은사에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선다. 봉은사는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지 원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지정전 옆에서 전통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대표 스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사십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 총무원장 선출제 ‘염화미소법’으로 추진

### 조계종 중회 특위, 7차 회의 결의... 추천인단 706명 확대

#### 총무원장 임기 ‘6년 단임’ 변경

#### 본사 25명 구성 및 재가자 포함

#### 대중공사 직선제 여론 반영 안돼

조계종 중앙중회가 조계종 6월 임시중회에 ‘염화미소법’을 차기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상정키로 해 진동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중회 총무원장선출제도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격, 이하 총무원장선출특위)는 6월 2일 7차회의를 열고 6월 임시중회에 차기 총무원장 선출제로 중정 스님이 추천하는 ‘염화미소법’을 부의한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중회의원들은 대중공사서 나온 ‘직선제’ 선호 여론에 대해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와 함께 대중공사서 결의된 참중권

확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장시간 회의 끝에 당초 500인 내외였던 총무원장 후보자 추천인단을 706명으로 확대했다. 특위가 마련한 염화미소법은 총무원장 추천인단이 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면 후보자 검증에 관한 갈마위원회를 거쳐 중정 스님이 추천하게 된다.

추천인단은 중앙중회의원 81명과 각 교구본사에서 25명씩을 추천인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비구니 스님이 교구당 5명씩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또 재가자를 대표해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교구본사 신도회장 25명을 추천인단으로 포함시켰다.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갈마위원회는 재신호계위원, 초신호계위원, 법규위원, 법제위원, 계단위원, 선원, 율원, 강원, 중앙신도회 추천 재가자 등 각 1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율원 위원을 1명 더 늘리고, 재가법률위원을 1명 더 추가해 1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선출특위는 총무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할 경우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년 단임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총무원장 임기는 4년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대해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한 일부 불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체 승단의 50%를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불교계 단체들은 참중권 확대를 위한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비구니 선거인단은 전체 311명 중 23명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천인단 구성에서도 총 703명 중 130명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배움 씨앗’ 움튼 아프리카, 부처님 나투다

### 아름다운동행, 6월 8~15일 부처님 진신사리 전시

조계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에 모셔질 부처님 진신사리 및 불상을 대중에 공개한다.

6월 8~15일 8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버서 열리는 전시회에선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탄생불 및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육사리 1

과·발사리 1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학교건립 스토리 사진전도 진행된다.

“배움의 씨앗이 싹트는 아프리카에 부처님이 함께한다면, 그보다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상 및 진신사리를 기증한 광제사 주지 경원 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모셔질 부처님이 더

큰 세상을 비추어 아이들의 꿈도 더 크게 펼쳐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인도서 태어난 부처님이 한국인들에게 불법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처님 진신을 아프리카에 모시고 가서 전법의 길을 열 것”이라며 “뜻 깊은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전시회 개막식은 6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서 열리며, 부처님 점안식은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서 진행된다. **박이름 기자**

##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 제 53見 평은 축제

평은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축복이며 축제이다

평은은 반야심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오온(색수상행식)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음경계이며

무생법인으로 나아가게 하며

평은은 마음의 갈등과 분별방상을 여윈 평상심이라

도(道)의 문(門)이 되며

평은은 업(제50見참조)이 자재하고 지혜광명의

마음 자리로 화엄경 십주의 초발보리심을

하계하는 원동력이 되며

평은은 석가세존께서

80세에 열반(당시 평균수명은30세

미만이었음)하신 수명을 현대(2016년)

평균수명으로 환산하면 약200세를 사셨듯이

무명장수의근원이 되며

평은은 업의 파도가 고요한 선정삼매로

업의 자재해탈로 나아가게 하며

만병이 저절로 물러가며

재액이 저절로 물러가며

마구니도 저절로 물러간다

평은은 자식인연, 형제인연, 도반인연, 부부인연,

부모인연 등을 화평하게 화합시키는

근원이 되며

평은은 마음이 평화롭고 온화하며 고요하여 매사에

집중이 자연스레 되어 학생은 우등생이며,

사업가는 억만장자가 되며, 수행자는

깨친 선지식으로 거듭나게 되며

평은은 지역갈등, 단체갈등, 정당갈등, 종교갈등,

국가갈등, 민족갈등, 자연환경과의 갈등 등등을

해소키 위해 가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한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이다

이를 진귀가 품어보면.....

평은은

석가세존의 또 다른 이름이며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석가세존께서 말세 중생들에게

던지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화두이다.

세계 희망단체-

평은센터

부속시설 화엄경 강원

화엄 화엄 명상원

